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박사학위논문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 건 학 과

정 은 영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의  
관련성

Association of Moral Self-concept and Ethical  
Values with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mong Students Majored in  
Healthcare Administration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 건 학 과  
정 은 영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의  
관련성

지도교수 류 소연

이 논문을 보건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 건 학 과

정 은 영

# 정은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종인

위원 전남대학교 교수 신준호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미아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성우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류소연인

2016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표 목차 .....	iii
Abstract .....	iv
<b>I. 서론 .....</b>	<b>1</b>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4
<b>II. 연구대상 및 방법 .....</b>	<b>5</b>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5
B. 연구도구 .....	6
C. 분석방법 .....	8
<b>III. 연구결과 .....</b>	<b>9</b>
A. 연구대상자의 특성 분포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9
2. 연구대상자의 전공관련 특성 .....	11
3. 연구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및 환자 개인 정보 보호인지 .....	13
B.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및 환 자 개인정보 보호인지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 .....	14
2. 전공관련 특성에 따른 비교 .....	16

3.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 의 상관관계 .....	18
C.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 관련 요인 .....	19
<b>IV. 고찰 .....</b>	<b>21</b>
<b>V. 요약 및 결론 .....</b>	<b>25</b>
<b>참고문헌 .....</b>	<b>27</b>
<b>부록 .....</b>	<b>30</b>

## 표 목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	10
Table 2. Major 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	12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oral self-concept, ethical values and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	13
Table 4. Comparisons of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	15
Table 5. Comparisons of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major related characteristics .....	17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moral self-concept and ethical values .....	18
Table 7. Related factors of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	20

## ABSTRACT

### Association of Moral Self-concept and Ethical Values with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mong Students in Majored in Healthcare Administration

Jung Eun Young

Advisor : Prof. Ryu, So Yeon, Ph.D.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the association of moral self-concept and ethical values with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mong students majored in healthcare administration.

**Methods:** Study subjects were 820 students majored in healthcare administration of 11 colleges in Honam region.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mpos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scales of moral self-concept, ethical values and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The used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wer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al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associated factors of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Results:** Mean scores of moral self-concept, ethical values and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were  $3.51 \pm 0.37$ ,  $3.60 \pm 0.40$ , and  $3.01 \pm 0.43$ , respectively. Moral self-concept and ethical value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nd it also identified the relationship of moral self-concept, ethical values and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necessary virtues of students in healthcare administration who would be deal with medical information were moral self-concept and ethical values to protect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f would be needed that diverse educational and case-based learning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in college to train responsible medical record technicians.

**Keywords:** Ethical values, Moral self-concept, Personal information, Perception, Protection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환자의 개인정보란 환자의 신체상황이나 병력 등의 건강상태나 그들에 대한 평가와 의료제공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Kim, 2002). 이러한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취급기관이 당초의 목적 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Kang, 2008; Park, 2009). 또한 자신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의료정보가 온라인상으로 유통되고 보험회사와 건강보조식품 회사 등에 누출되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사례가 국내·외에서 종종 보고되는 등, 의료정보 누출로 인한 환자 사생활 침해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Kang, 2008; Lee & Yun, 2004).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eestma, 2003).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법(2008)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의 열람에 관한 환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의료정보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Lee & Park, 2005). 또한 2010년 3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면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Kim et al., 2013).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행정안전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Jeong & Moon, 2015).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과 의료 기사를 포함한 환자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의료정보관리자들의 중요한 책무이다(Lee, 2010). 이러한 환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의료현장에 종사하면서 가져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접할 기회를 갖고, 이를 다루게 되는 학교의 교육과정, 특히 실습에서부터 체험되고 습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는 의료 현장에서 임상 실습을 수행하는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안 방법이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행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 의한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누설의 잡재적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Kim et al., 2013).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다양한 직종 중에서 의무기록사는 의료현장에서 타 전문직과 협력하면서 의료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직종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무기록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보 관리뿐만 아니라 환자의 질병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외부에 유출되는 것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환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이 밖에도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종사자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자아개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ee & Han, 2012).

도덕적 자아개념이란 개인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도덕적 측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도덕성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규정을 의미한다(Kim, 2005). 도덕적 자아개념은 도덕교육을 통한 학습으로 획득될 수도 있으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을 통해 획득하는 행동적 경험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리적 가치관 또한 도덕적 철학이나 가치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지켜야 할 도리이며,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원칙 또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Park, 2011). 이러한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이

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기록사를 포함한 의료정보를 다루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갖추어야 할 필요 덕목으로 제시된다(Lee & Han, 2012).

최근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78.3%), 간호사(74.0%) 그리고 의사(55.6%)가 불필요한 진료 내용 누설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Kim & Kim, 1999). 또한, 악의적인 유출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환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선행 연구도 있었다(Lee & Park, 2005; Yu, 2006). 환자 개인정보의 노출 경험이나 인식 및 실천 정도(Choi et al, 2016; Kim et al, 2015; Kim et al, 2013; Lee & Park, 2005)를 확인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나 필요한 특성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Kim et al, 2001)나 물리치료사(Ahn et al, 2016), 간호계열(Sung et al, 2011; Kim, 2015), 치위생 계열(Kang, 2010), 물리치료학과 학생(Ahn et al, 2016)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일부 있으나, 의무기록사 또는 준비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자에 대한 정보관리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나 의무기록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덕목과의 관련성을 확인, 이를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인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인지를 향상시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인지정도를 알아본다.
- 2)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인지의 차이를 알아본다.
- 3)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인지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 4) 다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의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인지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호남지역에서 보건행정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6개 대학, 전라남도 8개 대학, 전라북도 7개 대학 중 2년제 2개 대학, 3년제 6개 대학 그리고 4년제 3개 대학교를 편의 추출하여, 총 11개 대학 보건행정 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C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CSUH 2016-09-01)의 승인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9월 5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연구대상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학과 교수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대학교마다 설문 관련 협조자를 지정,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자기 기입방식으로 작성토록 하였으며, 회수방법은 설문 협조자가 직접 수거하여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에 연구자의 소개 및 연구목적을 기술하였고 연구 참여는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모든 설문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오직 연구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전체 900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성실하지 못했던 80명을 제외한 820명의 자료를 연구대상 자료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 B.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65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13문항 중 인구 사회학적 특성 6문항(성별, 연령, 학제, 학년, 흡연 및 음주 여부), 전공 관련 특성 7문항(학업 성적, 전공 만족도, 실습 기관, 실습 만족도, 실습시 개인정보 취급 여부, 의무기록사 윤리강령 인지여부,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여부), 도덕적 자아개념 18문항, 윤리적 가치관 20문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 운용 현황 5문항,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노출에 대한 인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1) 일반적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제, 학년, 흡연습관과 음주습관을 조사하였다. 학제는 2년제, 3년제, 4년제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흡연과 음주는 각각 흡연, 과거흡연, 비흡연과 음주, 과거음주, 비음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전공 관련 특성으로 학업성적은 평균 평점 3.0 미만, 3.0-3.5 미만, 3.5-4.0 미만, 4.0 이상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고, 보건행정학 전공과 실습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실습기관은 보험회사,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였고, 실습 시 환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 여부와 의무기록사 윤리강령 인지 여부는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경험 여부도 조사하였다.

### 2) 도덕적 자아개념

도덕적 자아개념은 정원식(1968)이 개발한 ‘자아개념 검사지’ 중 ‘도덕적 자아’ 문항을 이용하였다. 정원식의 도덕적 자아개념 검사지는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5점은 ‘매우 그렇

다’, 4점 ‘약간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고, 부정적 도덕적 자아개념 영역은 역 코딩 후 분석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0.74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0.78이었다.

### 3)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Schlenker와 Forsyth(1985)에 의해 개발된 윤리적 개념 척도(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를 기초로 Park(2000)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0.90이었고(Park, 2000),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0.80이었다.

### 4)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의 측정도구는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Yu(2006)가 사용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총 14문항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 운용 현황 5문항,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노출에 대한 인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적 환자 개인정보 보호 노출에 대한 인식 영역은 역 코딩 후 분석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70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74이었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 운용은 0.85,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노출에 대한 인식은 0.80이었다.

### C.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의 평균 비교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알아보았고,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05$ 로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A. 연구대상자의 특성 분포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는 여자가 73.9%, 남자 26.1%였다. 연령은 20-21세가 40.7%로 가장 많았고, 학제는 3년제 77.4%, 4년제 12.8%, 2년제 9.8%이었다. 학년은 2학년 39.8%, 1학년 29.9%, 3학년 25.5%, 4학년 4.8%이었다. 흡연습관은 흡연하지 않는 경우가 78.3%였고, 음주습관은 현재 음주하는 경우가 60.6%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214	26.1
Female	606	73.9
Age (years)		
<20	264	32.2
20 - 21	334	40.7
22≤	222	27.1
Educational system		
2-year system	80	9.8
3-year system	635	77.4
4-year system	105	12.8
School year		
1	245	29.9
2	326	39.8
3	209	25.5
4	40	4.8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123	15.0
Ex-smoker	55	6.7
Non-smoker	642	78.3
Drinking status		
Current drinker	497	60.6
Ex-drinker	83	10.1
Non-drinker	240	29.3
Total	820	100.0

## 2. 연구대상자의 전공관련 특성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전공 관련 특성에서 학업 성적은 3.5-4.0 미만이 29.9%로 가장 많았고, 4.0 이상이 19.5%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1.6%, 만족한다가 40.7%, 실습기관은 종합병원이 40.2%로 가장 많았다. 실습기관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가 54.1%, 만족한다가 39.5%, 실습시 환자 개인정보 취급여부는 취급하지 않았다가 65.6%이었다. 의무기록사 윤리강령 인지정도는 보통이다가 52.1%, 모른다가 36.1%, 알고 있다가 11.8%이었다. 환자의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가 55.6%,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44.4%이었다(Table 2).

**Table 2. Major 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N	%
Academic record (GPA)		
>3.0	200	24.4
3.0~3.4	215	26.2
3.5~3.9	245	29.9
4.0≤	160	19.5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63	7.7
Moderate	423	51.6
Satisfied	334	40.7
Practice institution		
Insurance company	58	7.1
Hospital	204	24.9
General hospital	330	40.2
Advanced General Hospital	228	27.8
Satisfaction of practice institution		
Dissatisfied	52	6.4
Moderate	444	54.1
Satisfied	324	39.5
Use of personal information		
No	538	65.6
Yes	282	34.4
Code of ethics for medical record administrator		
Don't know	296	36.1
Know a little bit	427	52.1
Know well	97	11.8
Edu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o	456	55.6
Yes	364	44.4
Total	820	100.0

### 3. 연구대상자의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및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은  $3.51\pm0.37$ 점이었고, 윤리적 가치관은  $3.60\pm0.40$ 점이었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의 총점은  $3.01\pm0.43$ 점이었고, 하위 영역별 점수는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 운용이  $3.60\pm0.85$ 점, 환자 개인정보 보호 노출에 대한 인식이  $2.83\pm0.53$ 점이었다(Table 3).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oral self-concept, ethical values and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Variables	M±SD
Moral self-concept	$3.51\pm0.37$
Ethical values	$3.60\pm0.40$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3.01\pm0.4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nd regulations	$3.60\pm0.85$
Perception in exposure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2.83\pm0.53$

## B.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도덕적 자아개념, 윤리적 가치관 및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

###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 점수 비교 결과, 성별의 경우 남학생  $3.08\pm0.44$ 점, 여학생  $3.00\pm0.35$ 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p=0.015$ ). 연령군별 비교는 20세 미만이  $2.91\pm0.33$ 점, 20~21세  $3.04\pm0.38$ 점, 22세 이상  $3.96\pm0.27$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 학제별로는 2년제  $2.98\pm0.35$ 점, 3년제  $3.00\pm0.38$ 점, 4년제  $3.19\pm0.33$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01$ ), 학년의 경우 1학년  $2.87\pm0.36$ 점, 2학년  $2.99\pm0.37$ 점, 3학년  $3.21\pm0.34$ 점, 4학년  $3.24\pm0.23$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 흡연습관에 따른 비교 결과, 현재 흡연  $3.10\pm0.39$ 점, 과거 흡연  $3.04\pm0.41$ 점, 비흡연  $3.01\pm0.37$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39$ ). 음주습관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인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 Comparisons of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M±SD	p Scheffe
Gender		
Male	3.08±0.44	0.015
Female	3.00±0.35	
Age (years)		
<20	2.91±0.33 <sup>a</sup>	<0.001
20-21	3.04±0.38 <sup>b</sup>	a<b<c
22≤	3.96±0.27 <sup>c</sup>	
Educational system		
2-year	2.98±0.35 <sup>a</sup>	<0.001
3-year	3.00±0.38 <sup>b</sup>	a,b<c
4-year	3.19±0.33 <sup>c</sup>	
School year		
1	2.87±0.36 <sup>a</sup>	<0.001
2	2.99±0.37 <sup>b</sup>	a,b<c,d
3	3.21±0.34 <sup>c</sup>	
4	3.24±0.23 <sup>d</sup>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3.10±0.39 <sup>a</sup>	0.039
Ex-smoker	3.04±0.41 <sup>b</sup>	c<a
Non-smoker	3.01±0.37 <sup>c</sup>	
Drinking status		
Current drinker	3.03±0.38	0.112
Ex-drinker	2.94±0.38	
Non-drinker	3.04±0.38	

## 2.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비교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 비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은 경우  $3.10 \pm 0.38$ 점, 받지 않은 경우  $2.96 \pm 0.37$ 점으로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 학업성적, 전공 만족도, 실습기관, 실습기관 만족도, 개인정보 취급 여부, 의무기록사 윤리강령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Table 5. Comparisons of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major 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s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M±SD	p Scheffe
Academic record (GPA)		
>3.0	2.99±0.39	0.241
3.0–3.4	3.00±0.39	
3.5–3.9	3.05±0.37	
4.0≤	3.05±0.35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3.02±0.78	0.487
Moderate	3.10±0.76	
Satisfied	3.04±0.80	
Practice institution		
Insurance company	3.08±0.48	0.385
Hospital	2.99±0.40	
General hospital	3.02±0.36	
Advanced General Hospital	3.04±0.35	
Satisfaction of practice institution		
Dissatisfied	3.08±0.79	0.970
Moderate	3.07±0.79	
Satisfied	3.06±0.77	
Use of personal information		
No	3.04±0.37	0.068
Yes	2.98±0.40	
Code of ethics for medical record administrator		
Don't know	3.13±0.80	0.175
Know a little bit	3.04±0.77	
Know well	2.99±0.73	
Edu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o	2.96±0.37	<0.001
Yes	3.10±0.38	

### 3.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의 상관관계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 사이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도덕적 자아개념 ( $r=0.119, p<0.01$ )과 윤리적 가치관( $r=0.119,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6).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moral self-concept and ethical values**

Variables	V1	V2	V3
V1	1		
V2	0.119**	1	
V3	0.119**	0.296**	1

\*\* $p<0.01$ , V1: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 V2: Moral self-concept ; V3: Ethical values

## C.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 관련 요인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에 미치는 변수들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인 성별, 연령, 학제, 학년, 흡연여부, 개인정보 교육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덕적 자아개념( $\beta=0.101$ ,  $p=0.003$ )과 윤리적 가치관( $\beta=0.064$ ,  $p=0.048$ )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 밖에도 1학년보다는 3학년( $\beta=0.372$ ,  $p<0.001$ ), 4학년( $\beta=0.379$ ,  $p<0.001$ ), 2학년( $\beta=0.144$ ,  $p<0.001$ )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교육을 받은 대상자( $\beta=0.052$ ,  $p=0.044$ )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성별, 연령, 학제, 흡연여부와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한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의 설명력은 15.8%였다(Table 7).

**Table 7. Related factors of perception for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Variables	$\beta$	SE	B	t	p-value
Constant	2.436	0.152		15.994	<0.001
Moral self-conception	0.101	0.034	0.100	2.941	0.003
Ethical values	0.064	0.032	0.068	1.984	0.048
Gender (/Male)					
Female	-0.052	0.035	-0.060	-1.458	0.145
Age (/<20)					
20-21	-0.044	0.038	-0.057	-1.170	0.242
22≤	-0.065	0.047	-0.077	-1.338	0.166
Educational system (/2-year system)					
3-year system	-0.076	0.044	-0.084	-1.744	0.082
4-year system	-0.042	0.063	-0.037	-0.666	0.506
School year (/1)					
2	0.144	0.038	0.185	3.809	<0.001
3	0.372	0.047	0.427	7.949	<0.001
4	0.379	0.084	0.215	4.501	<0.001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Ex-smoker	-0.062	0.057	-0.041	-1.088	0.277
Non-smoker	-0.067	0.038	-0.073	-1.738	0.083
Edu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o)					
Yes	0.052	0.026	0.068	2.015	0.044

 $R^2 = 15.8\%$

## IV. 고찰

본 연구는 졸업 후 의무기록사로 일하며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는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지정도를 파악하고,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인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는  $3.01 \pm 0.43$ 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동일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를 조사하였던 2·3차 의료기관의 응급실 간호사의  $4.24 \pm 0.30$ 점(Jung & Ju, 2009)과 간호사  $4.11 \pm 0.44$ 점(Lee & Park, 200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2002년 의료정보의 전산화가 합법화되면서 국내 초대형 병원을 선두로 병원 및 보건 의료인 단체에서 환자권리장전, 병원윤리 정책, 윤리강령 등을 도입, 채택하면서 의료인 및 기타 관계자들의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Jung & Ju, 2009). 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는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이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가 44.4%에 불과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볼 때 학생 교육 시기에서부터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은  $3.51 \pm 0.37$ 점(5점 만점)으로, 이는 간호사  $3.10 \pm 0.26$ 점(Kim et al., 2001)과 임상 간호사  $2.86 \pm 0.22$ 점(Seo, 2004)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직종에 의한 이유인지 혹은 대상자의 연령에 기인한 근거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임상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과의 적응이라는 사회화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Kim, 2015).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은  $3.60 \pm 0.40$ 점(5점 만점)이었

고, 치위생학생  $3.62 \pm 0.42$ 점(Kang, 2010)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고, 간호대학생  $3.41 \pm 0.34$ 점(Kim, 2015)으로 본 연구보다는 낮았다.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제 임상실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사례를 제시하여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인 규칙의 관계를 밝혀내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Kim et al., 2014).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 모두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관련성은 다중선행회귀분석에서도 유지되어 개인정보 보호 인지에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은 관련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인 치위생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윤리적 가치관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윤리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의무기록사는 전문직으로써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가치관을 지니고 타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혈장실무에 있어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은 더욱 확립되어져야 한다(Kim et al, 2001). 최근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환자의 입장에서 발급의 편리성에 가치를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편리성보다는 까다로운 환자 본인의 동의 절차 확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무기록 사본 발급 업무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Jeong & Moon, 2015). 또한,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면서 보건통계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기록정보의 요구 등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관리하는 업무 또한 더욱 복잡하고 법적 전문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Choi et al, 2016). 이에 의무기록사들은 서로 대립되는 가치 충돌 가운데에서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서는 상황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윤리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교육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Ahn et al., 2016). 윤리적 가치관 또한 환자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이행(Seo, 2004)으로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건행정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 교육 시기에서부터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 확립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과 개인정보 교육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학년보다는 3학년 4학년에서, 그리고 개인정보 교육을 받은 대상자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가 높았다. 치위생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 Song(2007)의 연구에서도 연령과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 & Ju(2009)의 연구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은 대상자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가 높았고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교육 시기에서부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보건행정 전공대학의 교육 과정에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결과 일반화의 제한이다. 본 연구 대상의 학교를 임의 추출하여 선정하였고 호남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전체 보건행정 전공학과에 본 연구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된 연구로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의 원인적 연관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관련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 인식도와 실천도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했던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에 대한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에서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실증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을 합양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의무기록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의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를 향상시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820명의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t-검정과 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의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에 대한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01 \pm 0.43$ 점, 도덕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는  $3.51 \pm 0.37$ 점,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점수는  $3.60 \pm 0.40$ 점이었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에 미치는 변수들의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인 성별, 연령, 학제, 학년, 흡연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교육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도덕적 자아개념( $\beta=0.101$ ,  $p=0.003$ )과 윤리적 가치관( $\beta=0.064$ ,  $p=0.048$ )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1학년보다는 3학년( $\beta=0.372$ ,  $p<0.001$ ), 4학년( $\beta=0.379$ ,  $p<0.001$ ), 2학년( $\beta=0.144$ ,  $p<0.001$ )에서, 개인정보 교육여부는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교육을 받은 대상자( $\beta=0.052$ ,  $p=0.044$ )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에 대한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실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학 기간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시간 편성 및 교과목을 통

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덕적 자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례기반 학습을 통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S.C. Kim. Access right to health care information in anglo-american law, 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University 2002;8:17-32
- H.K. Kang. Domestic privacy protection status,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2008;51:78-85
- J.H. Park. The Protection and Use of Health Information in Medical Research:A Study of the HIPAA Privacy Rule,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2009;37:241-268
- C.B. Lee, J.Y. Yun. A study on foreig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ases,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2004;04:01-232
- Leestma R. Implementing technological safeguards to ensure patient privacy, Caring 2003;22(2):16-18
- M.Y. Lee, Y.I. Park. A study on the Nurse's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5;11(1):7-20
- C.H. Kim, S.Y. Jeong, Y.S. Song.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f pati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PPIP) in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3;11(11):479-490
- J.N. Jeong, I.O. Moon. Hospital employees' knowledge, recognition and practice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Korean Medical Informatics 2015;21(1):1-13
- D.U. Lee. A study on the perception about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atients-focused on the medical manpower in hospital-, Wonkwang University 2010
- S.J. Lee, G.S. Han. The ethical propensity, professionalism and ethical job behavio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2012;36(3):238-248

- K.H. Kim.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game addiction on the aggression and the moral self-understanding of secondary school student,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05
- K.S. Park.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Ethics and Social Welfare Consciousness on Job Satisfaction, Korea University 2011
- H.U. Kim, J.H. Kim. A survey on the attitude of social groups toward security,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health information: an original paper authors and affiliations,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1999;5(3):63-76
- J.W. Yu. Comparison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on the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medical information, Korea University 2006
- S.Y. Choi, D.Y. Lim, I.S. Ko, I.O. Moon. Perception and performance about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llied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6;22(1):83-95
- Y.I. Kim, S.H. Kim, J.H. Jang. Influencing factors on perception of patient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focusing preventive scal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5;15(4):743-750
- Y.S. Kim, M.S. Yoo, J.W. Park, Y.J. Son. Relationship between nurses's self concept and ethical concept, J Korean Acad Nurs Admin 2001;7(3):415-423
- C.G. Ahn, M.C. Kim, M.S. Lee, S.K. Kim.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thical values of physical therapy: Focused on physical therapists and physic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016;4(2):37-51
- K.W. Sung, D.S. Kim, M.Y. Han, E.Y. Kwak, G.Y. Kim, E.J. Kim. et

- al., Relationships between patient privacy act, nursing ethic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1;10:267-288
- M.S. Ki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5;21(3):382-392
- B.W. Kang. A study on the ethical valu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Dental Hygiene Education 2010;10(1):1-18
- W.S. Jung. Tennessee self-concept scale, Seoul, Korean Testing Center 1968
- H.S. Park. Evaluating the ethics of controversial advertising issues and moderating effects of ethical ideologie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000;11(3):147-163
- S.Y. Jung, H.O. Ju.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emergency-room nurse's protection behavior for the Consumer Health information, J Korean Acad Nurs Admin 2009;15(3):403-414
- Y.S. Seo, A Study on the Ethical Sensitivity and Moral Self-Concept of Clinical Nurses, Ajou University, 2004
- E.A. Kim, H.Y. Park, S.E. Choi.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14;17(2):144-158
- M.I. Lee, Y.S. Song A study on patients' perception of nurse's behavior in protecting patient privacy, Journal of Korean Acad Fundam Nurs 2007;14(2):204-212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보건계열 학생의 도덕적 자아개념 및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지와의 관련성”을 조사연구하여 향후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모색하려는 연구의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응답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과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 정은영 올림(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지도교수 : 류소연(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연구참여동의서

- 본인은 위 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본인에게 없음을 이해합니다.
- 연구의 실시절차와 자료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연구대상자의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 \_\_\_\_\_ 서명 \_\_\_\_\_ 서명일 : 2016 년 \_\_\_\_ 월 \_\_\_\_ 일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다음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활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를 해주십시오.(도덕적 자아개념 검사지)**

문 항	매우 그렇 지 않다	대체 로그 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대개 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예의와 체면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올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할 때가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⑤
6.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따르기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7.나는 나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본의 아니나마 하게 되는 거짓말을 앞으로 삼가야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9.나는 매사에 있어서 체면을 지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나는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체면을 지켜야 할 일은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11.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나는 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보였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3.나는 강한 도덕적 생각과 태도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나는 나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5.나는 체면도 염치도 없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6.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7.나는 체면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8.나는 점잖고 예절 바른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은 최소한 의도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작은 위협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위협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떠한 이익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결코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에 위협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결백한 사람에게는 기필코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미래에 좋고 나쁜 일들을 상상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사람들의 존엄성과 행복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의 행복을 결코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도덕적 행동은 가장 “완벽한” 행동과 일치되는 개념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도덕적 원칙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무엇이 도덕적인가 하는 것은 그 사회나 장소마다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도덕적 가치관의 기준은 개인적인 것이다. 한 사람에게 도덕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도덕적이 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양한 종류의 도덕적 행위는 “바른행위”와 비교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윤리적인가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무엇이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해답이 있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도덕적 기준은 나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것에 대한 행동결정은 각자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도덕적 가치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거짓말에 대한 규칙은 없다. 거짓말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전적으로 상황에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거짓말이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하는 것은 그 때의 상황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III.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하나만 ✓ 표를 해주십시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운용 현황

1. 귀하는(이하 생략)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를 알고 계십니까?

-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보통이다(    )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

2.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9조(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자」는 고소가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알고 계십니까?

-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보통이다(    )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

3.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제5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알고 계십니까?

-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보통이다(    )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

4.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3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알고 계십니까?

-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보통이다(    )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

5.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에 따라 환자의 진료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보통이다(    )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

★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 보건계열 학생들의 환자개인정보보호 노출에 대한 인식

1-3.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하나만 체크(✓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중 어디까지 노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명	①	②	③	④	⑤
주민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주소	①	②	③	④	⑤
전화번호	①	②	③	④	⑤

2. 입원환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어디까지 노출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성명	①	②	③	④	⑤
진료과	①	②	③	④	⑤
병실호수	①	②	③	④	⑤

3. 방문객에게 입원환자의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병명	①	②	③	④	⑤
환자상태	①	②	③	④	⑤
입원기간	①	②	③	④	⑤

4. 전화상으로 입원환자의 정보를 물으면 개인정보를 알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5.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하여 환자가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6. 병원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인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7.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공공장소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8. 환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모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9. 환자의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족(보호자)에게 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 I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 표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3. 귀하의 대학교 학제는?

- ① 2년제              ② 3년제              ③ 4년제

4. 귀하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5. 귀하의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6. 귀하의 흡연 여부는?

- ① 흡연              ② 과거흡연              ③ 비 흡연

7. 귀하의 음주 여부는?

- ① 음주      ② 과거음주      ③ 비 음주

8. 귀하의 학업 성적은?

- ① 평균평점 2.5 미만      ② 평균평점 3.0~2.5 미만  
③ 평균평점 3.0~3.5 미만      ④ 평균평점 3.5~4.0 미만  
⑤ 평균평점 4.0 이상

9. 귀하의 보건행정학 전공 만족도는?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0. 귀하의 실습 기관은?(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병원      ② 종합병원      ③ 상급종합병원      ④ 보험회사

11. 귀하의 실습 만족도는?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2. 귀하는 실습시 환자 개인정보에 대하여 취급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3. 귀하는 대한의무기록협회의 의무기록사 윤리강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대체로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14. 귀하는 자료의 정보공유를 원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검색선호도는?

- ① SNS(Social Network Service)      ② 인터넷포털사이트      ③ 기타

15.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온라인 교육포함)을 받으셨습니까?

- ① 아니다      ② 그렇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